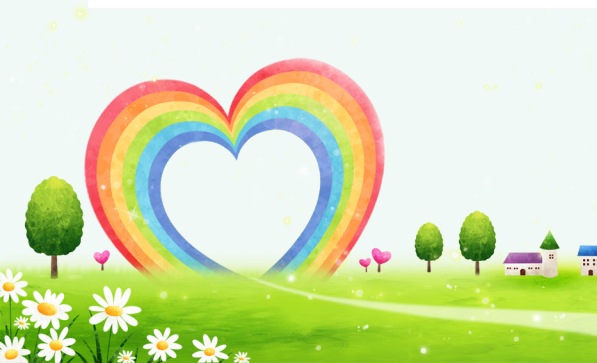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손으로 보는 세상





6월부터 더운 날씨가 한참입니다. 특히 이번 6월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내세요”라고 응원할 때, “힘내세요”는 점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힘내세요”는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ㅇ ㅇ	ㄴ ㅇ ㅇ	ㄷ ㅇ ㅇ	ㄹ ㅇ ㅇ	ㅁ ㅇ ㅇ	ㅂ ㅇ ㅇ	ㅅ ㅇ ㅇ	ㅇ ㅇ ㅇ	ㅈ ㅇ ㅇ	ㅊ ㅇ ㅇ	ㅋ ㅇ ㅇ	ㅌ ㅇ ㅇ	ㅍ ㅇ ㅇ	ㅎ ㅇ ㅇ	원소리 ㅇ ㅇ ㅇ
받침	ㄱ ㅇ ㅇ	ㄴ ㅇ ㅇ	ㄷ ㅇ ㅇ	ㄹ ㅇ ㅇ	ㅁ ㅇ ㅇ	ㅂ ㅇ ㅇ	ㅅ ㅇ ㅇ	ㅇ ㅇ ㅇ	ㅈ ㅇ ㅇ	ㅊ ㅇ ㅇ	ㅋ ㅇ ㅇ	ㅌ ㅇ ㅇ	ㅍ ㅇ ㅇ	ㅎ ㅇ ㅇ	
모음	ㅏ ㅇ ㅇ	ㅑ ㅇ ㅇ	ㅓ ㅇ ㅇ	ㅕ ㅇ ㅇ	ㅗ ㅇ ㅇ	ㅛ ㅇ ㅇ	ㅜ ㅇ ㅇ	ㅠ ㅇ ㅇ	ㅡ ㅇ ㅇ	ㅣ ㅇ ㅇ					
	ㅐ ㅇ ㅇ	ㅒ ㅇ ㅇ	ㅖ ㅇ ㅇ	ㅙ ㅇ ㅇ	ㅚ ㅇ ㅇ	ㅜ ㅇ ㅇ	ㅟ ㅇ ㅇ	ㅞ ㅇ ㅇ	ㅟ ㅇ ㅇ	ㅢ ㅇ ㅇ	ㅤ ㅇ ㅇ	ㅥ ㅇ ㅇ	ㅦ ㅇ ㅇ	ㅧ ㅇ ㅇ	ㅨ ㅇ ㅇ
약자	가 ㅇ ㅇ	나 ㅇ ㅇ	다 ㅇ ㅇ	마 ㅇ ㅇ	바 ㅇ ㅇ	사 ㅇ ㅇ	자 ㅇ ㅇ	카 ㅇ ㅇ	타 ㅇ ㅇ	파 ㅇ ㅇ	하 ㅇ ㅇ	억 ㅇ ㅇ	언 ㅇ ㅇ	얼 ㅇ ㅇ	연 ㅇ ㅇ
	열 ㅇ ㅇ	영 ㅇ ㅇ	옥 ㅇ ㅇ	온 ㅇ ㅇ	웅 ㅇ ㅇ	운 ㅇ ㅇ	울 ㅇ ㅇ	은 ㅇ ㅇ	을 ㅇ ㅇ	인 ㅇ ㅇ	것 ㅇ ㅇ	ㅸ ㅇ ㅇ	ㅹ ㅇ ㅇ	ㅺ ㅇ ㅇ	ㅻ ㅇ ㅇ
약어	그래서 ㅇ ㅇ		그러나 ㅇ ㅇ		그러면 ㅇ ㅇ		그러므로 ㅇ ㅇ		그런데 ㅇ ㅇ		그리고 ㅇ ㅇ		그리하여 ㅇ ㅇ		
숫자	수표 ㅇ ㅇ	1 ㅇ ㅇ	2 ㅇ ㅇ	3 ㅇ ㅇ	4 ㅇ ㅇ	5 ㅇ ㅇ	6 ㅇ ㅇ	7 ㅇ ㅇ	8 ㅇ ㅇ	9 ㅇ ㅇ	0 ㅇ ㅇ				
문장 부호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출입표(...) ㅇ ㅇ										
영어	a ㅇ ㅇ	b ㅇ ㅇ	c ㅇ ㅇ	d ㅇ ㅇ	e ㅇ ㅇ	f ㅇ ㅇ	g ㅇ ㅇ	h ㅇ ㅇ	i ㅇ ㅇ	j ㅇ ㅇ	k ㅇ ㅇ	l ㅇ ㅇ	m ㅇ ㅇ	n ㅇ ㅇ	
	o ㅇ ㅇ	p ㅇ ㅇ	q ㅇ ㅇ	r ㅇ ㅇ	s ㅇ ㅇ	t ㅇ ㅇ	u ㅇ ㅇ	v ㅇ ㅇ	w ㅇ ㅇ	x ㅇ ㅇ	y ㅇ ㅇ	z ㅇ ㅇ	영어시작 ㅇ ㅇ	끝 ㅇ ㅇ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ㅸ, ㅹ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힘내세요 02

테마기획 | 기적을 만드는 힘 04

우리연합회에서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3기 이병돈 회장 취임식 개최
따뜻한 봄날의 걷기대회, 함께 걸어요! 06

뉴스앨범 | 시각장애인 등산교실, 건강걷기교실 실시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08

함께 사는 이야기 |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
김동우(시각장애1급, 경상남도 거제시) 09

2014 06
vol. 167



인터뷰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궁금하세요?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 담당자 김홍진 씨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초,
제생원 맹아부는 어떻게 설립됐을까요 12

포커스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화면해설 오디오북 제작 및 재능기부 협약식'
맺었습니다 14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5호 통권 166호

발행일 2014년 6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라이징(02-542-5064)

기적을 만드는 힘

—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

miracle



이번 테마기획 코너에서는 기적을 만드는 진심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880년대 미국 보스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0년대, 미국 보스턴 주립 빈민 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빈민 보호소에는 마치 짐승처럼 손만 가져다 대면 소리를 지르고 과격하게 폭력을 일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애니'였는데요, 애니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하게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도 이 소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빈민보호소

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애니를 보호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애니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 은퇴한 로라가 빈민보호소에 일자리를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빈민보호소에서는 로라에게 애니를 맡기로 결정하는데요, 로라는 다들 포기했던 애니를 진심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애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반항했습니다. 로라는 애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애니는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남동생과 함께 빈민보호소에 오게 되었는데 남동생마저 빈민보호소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라는 애니를 더욱 측은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로라가 애니에게 다가갈수록 로라는 애니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로라는 애니의 행동을 살펴 보면서 애니의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애니의 시력을 위해 병원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호소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니가 괴롭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보호소에서는 애니에게 관심을 갖기는 커녕 고통스런 안정제 주사를 투여한 것입니다.

이런 빈민보호소의 태도에 화가 난 로라는 애니를 데리고 빈민보호소를 나왔습니다. 둘이 함께 살면서 로라가 애니를 정성스럽게 돌보자 애니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는데, 더 나아가 애니는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로라에게 얘기합니다. 즉, 술을 마시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아버지의 계속된 폭력으로 엄마가 죽게 되었으며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인 남동생마저 빈민보호소에서 죽게 되어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본인의 사연을 로라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로라는 애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더욱 노력하였고 상태가 나아진 애니는 퍼킨스맹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

니다. 애니가 수업을 듣던 어느 날 로라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라는 애니에게 “누구나 기적에 대한 권리가 있단다.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니는 강가의 다리 위에 앉아 있다가 중년의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중년의 신사는 애니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 말을 거는데 애니는 앞을 볼 수는 없어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어 애니는 로라가 유언으로 남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감동한 신사는 애니에게 기적을 선물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신사는 안과 의사였으며 애니의 말에 감동하여 무료로 수술을 집도한 것입니다. 애니는 수술 끝에 시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애니는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돌려주기 위해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애니가 교사가 되어 만난 시각장애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 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의 주인공 애니의 정식 이름은 앤 설리번,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설리번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시각장애인 당사자였던 앤 설리번은 로라의 진심어린 보살핌으로 기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적처럼 만난 의사에 의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알게 된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자 헬렌 켈러를 진심을 다해 가르친 것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3기 이병돈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3기 이병돈 회장 취임식이 지난 6월 10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윤현덕 국장,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낙영 회장,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김우현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 등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시각장애인 회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돈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실명시기,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변할 것이며, 시각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멀리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취임식은 피아니스트 이보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중창단 영광칸투스, 바이올리니스트 심정은, 피아니스트 김정근의 협연, 태너 이원웅의 공연이 이어져 축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걷기대회, 함께 걸어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따스한 봄날을 맞아 2014년 시각장애인 춘계 걷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지난 5월 26일 남산 산책로에서 실시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300여 분이 참석해주셔서 화창한 봄날의 남산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기구,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안전사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에 경치가 좋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산책로에서 시각장애인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금번 걷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걷기대회는 시각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걷기운동을 비장애인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비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산교실, 건강걷기교실 실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5월에 건강 걷기대회, 등산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하늘 공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등산교실은 도봉산, 불암산, 왕방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건강걷기대회, 등산교실에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서울메트로 산악회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기, 등산을 실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 교육과 현장 점검교육으로 이뤄지는데요, 서울 여의도의 이룸센터와 서울시청의 실제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체험을 해보는 등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김동우(시각장애1급, 경상남도 거제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바로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장애가 과연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같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에 의한 불편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상태를 ‘극복’이라는 단어를 붙여 부르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인간이 특정 신체부위에 장애를 입어 그 기능이 정지됐다면 나머지 신체 기능들을 좀 더 활용하고 발달시켜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는 적응하는 것이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말처럼 달릴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물고기와 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듯 장애인도 장애를 뛰어넘어 비장애인과 같아질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극복이니 적응이니 하는 말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장애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패러다임이 변한지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를 개인적 극복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장애인 중 대다수 경우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됐다.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종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는 말이며 따라서 장애에서 비롯하는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선천성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임으로 장애는 개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책임론에 비추어 볼 때 장애는 극복의 대상도, 적응의 문제도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인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그렇게 되어야지만 언제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르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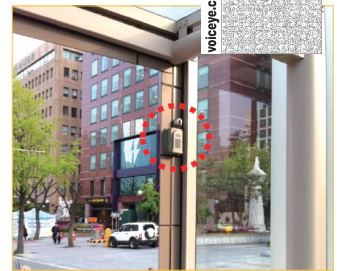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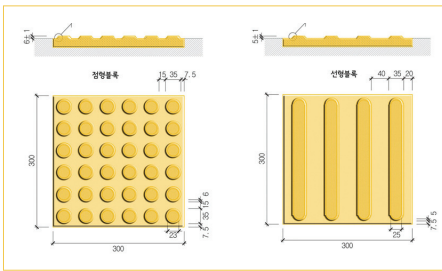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고맙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끊임없이 장애인이 양산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장애인들도 갑자기 장애가 찾아왔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라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싶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궁금하세요?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 담당자 김홍진 씨를 만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실 담당자 김홍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에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상담이 접수되면 종합상담실에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직접 찾아가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올바른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김홍진 씨에게 직접 종합상담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실까요?





Q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2008년부터 편의증진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실에서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 점검을 하여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생활, 여가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때 편의시설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문제점에 대하여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또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해당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편의시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에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936-00820이며 이메일 주소는 kbu1119@naver.com입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홈페이지 www.kbufac.or.kr의 상담센터 코너를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이 접수되면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A 편의시설 상담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정확한 현장의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렵게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을 하고 개선요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Q 편의증진센터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때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A 해당지역 기관에 편의시설 시정 및 개선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이에 민원인이 편의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면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종합상담실을 담당하면서 인상 깊었던 적은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이 직접 동행하여 같이 점검을 했을 때였습니다. 실제 편의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직접 보여 주시며 신고해주셨던 모습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Q 손으로 보는 세상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도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혼자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접수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개선을 요청해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초, 제생원 맹아부는 어떻게 설립됐을까요?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에서는 시각장애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생원 맹아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생원 맹아부가 생기기 전에도 평양에 맹아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평양맹아 학교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만 학생으로 받아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위치가 우리나라 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평양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생원 맹아부가 서울에 관립으로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시각장애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제생원 맹아부는 설립 당시부터 안마술, 침술, 구술을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제생원 맹아부를 졸업한 시각장애인들은 침사, 구사, 안마사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생원 맹아부는 어떠한 계기로 설립된 것일까요? 제생원이 설립되기 전 우리나라에는 많은 민간 사회사업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880년 프랑스인 장블랑 신부가 양로원,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했으며 1906년에는 유길준, 이우준 등이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민간 사회사업 기관들이 일제의 통치하에 위축되었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구휼기관이었던 제생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당시 제생원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맹아부, 고아를 위한 양육부, 정신병 환자를 위한 의료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시각장애학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시각장애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끄러워하고 외출을 금지하거나 취학을 기피하는 등 제생원의 설립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시각장애가정에 직접 찾아가 시각장애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입학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어린 자녀를 서울까지 보내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관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등에 제생원 맹아부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시각장애가정에 파견하여 입학을 권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생원 맹아부에 지원한 학생의 수가 1913년에는 43명이었고 그 후 지원자가 소폭 감소하다가 1921년에는 63명이 지원했으며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가 1935년에는 1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한 학생 모두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생원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만 제생원 맹아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13년 4월 1일 제생원 맹아부의 수업을 시작했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1913년 4월 10일에는 제생원관제를 제정 및 공포하였는데, 이전까지 제생원에 속했던 정신병 환자에 관한 사무를 조선총독부 의원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제생원관제 제정 및 공포 이후부터 제생원은 맹아부와 양육부 이원 체제로 구성되었는데요. 또한 제생원 맹아부의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을 규정하여 제생원 맹아부의 교육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임안수, 2010년)」 참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화면해설 오디오북 제작 및 재능기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화면해설 오디오북 제작 및 재능기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녹음봉사 및 오디오북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은 지식,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통해 경제, 인문 등의 지식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분들은 자발적으로 녹음봉사에 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녹음봉사에 앞서, 보다 나은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전문 성우에게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분들에게 교육을 해주신 성우 최수민 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수민 님은 수십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활약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영심이의 영심 역, 은하철도 999의 철이 역이 있습니다.

성우 서혜정 님의 사회로 시작된 '화면해설 오디오북 제작 및 재능기부 협약식'에는 한국자산관리공단 홍영만 사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박준석 관장님 등 내빈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의 홍영만 사장은 “1990년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영어공부를 위해 책을 구입하기 위해 간 서점에서 오디오북을 처음 봤다. 오디오북을 위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많은 양의 오디오북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하



고 싶었다”며 이번 화면해설 오디오북 제작 및 재능기부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일반 영상물과 화면해설 영상물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영상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100여 명의 녹음봉사자들은 교양서적부터 그림동화까지 총 70권의 책을 녹음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14,000부의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지하철에서 안내할 때

지하철 승강장은 전동차가 오가는 선로가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보면 먼저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배려해주세요. 승차하는 문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거나
매표소나 출구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후원안내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외환은행 170-22-00710-6